

# 진짜 '붓다' 만드는 게 내 꿈

## 'buddha' 시리즈 통해 키네틱 아트 선보인 왕지원 작가



왕지원 작가가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를 기계모형으로 표현한 작품 'Kwanon-Z'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점차 순수 예술 분야의 경계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대 예술가들은 점점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다양한 매체와 내용이 혼합된 작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작품을 위해 다양한 소재들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불교의 이미지를 현대미술에 응용시킨 작품들이 늘고 있다.

키네틱 아티스트인 왕지원 작가는 불교적 이미지를 통해 키네틱 아트(Kinetic Art)를 선보인다. 움직이는 예술을 뜻하는 키네틱 아트는 아

직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장르지만, 점차 새로운 장르로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이다.

어릴 적부터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다는 왕지원 작가는 최우람 조각가 밑에서 오랫동안 어시스턴트 일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키네틱 아트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왕 작가는 2009년부터 'buddha' 시리즈를 통해 부처의 형상을 한 기계 모형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2002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6개월 동안 입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몸이 망가지고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기계가 된다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로봇을 인간으로 형상화해 전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첫 개인전 당시만 해도 그의 작품에선 불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왕 작가는 "부처의 이미지를 작품에 착안하게 된 것은 첫 개인전 당시, 어느 할머니가 작품 앞에서 절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부터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그 장면을 보고 '내 작품이 불상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불교에 관련된 책과 자료들을 살펴 보면서 불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붓다가 태어나서 출가해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고, 저에게는 붓다가 마치 신처럼 초월적인 인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해 오던 기계로서의 초월함과 붓다의 이미지를 섞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왕지원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일부러 불교와 관련된 의미는 부여하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한 초월의 의미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의미와 달랐기 때문이다.

"붓다가 일초를 역경으로 사는 과정을 통해 해탈을 이루었듯이, 저는 기계를 통해 해탈을 이루고 더 좋은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왕지원 작가가 이렇게 완성한 'buddha' 작품은 현재까지 8점에 이른다. 보통 작품 하나에 짧게는 2-3달에서 길게는 1년 정도의 작업 시간이 소요된다. 작품의 작업도 거의 모든 부품이 주문제작으로 이뤄져 작품에 투자되는 비용만도 만만치 않다. 그래도 왕 작가는 작품이 완성될 땐 가장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키네틱 아트가 움직이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 어느 때는 너무 움직이는 것에만 집중해 제가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작품을 할 때 움직

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왕지원 작가의 작품은 올해만 벌써 11번의 전시에 참여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작품의 인기 비결을 묻자 왕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단지가 전시 저 전시 끼워 넣기 좋은 소재일 뿐, 작품이 결코 훌륭해서 아니다"라고 손사래 친다.

"고도에 갔을 때, 심이나한들이 동그렇게 큰 불상을 감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buddha' 시리즈의 마지막 작업은 심이나한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관음보살, 미륵보살 등 주로 보살을 위주로 작업을 했는데, 'buddha'의 마지막은 진짜 '부처'를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왕지원 작가는 올해 말 즈음 뉴욕에서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지원 작가의 작품은 서울시 안국동 사비나미술관에서 봄 특별 기획전으로 마련된 '다중감각'전을 통해 4월 15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02)736-4317

글=이은정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이은정 기자의 뽀뽀(Fun Fun)한 레시피④

## 딸기 푸딩

오래 전에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 글을 본 적이 있다. "왜 학교는 산꼭대기에 지어졌을까요?" 무심코 흘려버린 말이었는데 생각해 보니 웬만한 학교들은 다 오르막길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지방에서 모든 학창시절을 보냈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유달리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학교자체에서 버스까지 운행할 정도였으니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올라가는 길은 운동 발달뿐이었는데, 유달리 학교 주변은 딸기밭이 많았다.

사춘기 시절이 다 그러하듯,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이상하게 봄바람만 치내마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다. 오후 보충수업까지 마치고 입이 심심하다 느낄 때면 친

구들과 나는 항상 딸기밭으로 향했다. 아까운 청춘을 보충수업과 일명 '야자(야간 자율학습)'로 보내기엔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야자시간이 돌아오기 전 작전을 세웠다. 야자시간이 시작되고 선생님들이 무단이탈자가 없는지 출석체크를 마치면 그때 몰래 교실을 빠져나오는 것이다. 날씨가 조금 풀리면 딸기밭에는 항상 사람의 발길로 붐볐다. 발주인이 직접 밭에서 따주는 딸기들을 한 바구니씩 사서, 벤치에 앉아 먹는 게 그 동네 풍경이었다. 우리도 교실을 탈출하면 발주인이 만들어 놓은 두드막에서 딸기 한 바구니씩을 먹어 없애곤 학교로 들어갔다. 물론 운이 조금 따라주지 않는 날에는 딸기 먹은 에너지를 벌 서는 데에 다 쓰곤 했다.



#알고가기 1~5월에 제철인 딸기는 비타민 C가 풍부해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 우유, 요구르트 등과 함께 먹으면 갈증이 보충돼 골다공증 예방에 좋으며,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딸기는 습도에 약해 밀봉해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종이상자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보관은 1주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딸기를 구입할 때는 꼭지가 마르지 않고 진한 푸른색을 띠는 것이 좋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딸기 500g, 한천가루 10g, 설탕 3큰술, 물엿 반 컵, 소금

음식 만들기

- ① 딸기는 깨끗이 씻어 꼭지를 따고, 끓는 물에 넣고 5분간 끓여 준다.
- ② 끓인 물은 한번 걸러내 소금과 설탕, 물엿을 넣고 저어가며 다시 끓여 준다.
- ③ 어느 정도 물이 끓으면 한천가루를 풀어 넣는다.
- ④ 원하는 모양의 틀을 준비해 두고 딸기를 작게 썰어 넣고 틀에 부어 굳혀준다.



## 화폭 가득한 우주로 떠나는 여행

### 오경환 작가의 '우주(宇宙)의 심연(深淵)'展

'우주의 작가'로 알려진 원로작가 오경환이 OCI미술관에서 4월 6일까지 '우주(宇宙)의 심연(深淵)'이란 제목으로 개인전을 갖는다. 한 국예술종합학교 초대 미술원장을 지내고 40여 년 동안 꾸준히 화업을 이어온 오경환 작가는 70세의 나이에 도 불구하고 젊은 화가들보다 더

한 열정과 집중력으로 초자연의 세계인 우주공간에 현실적인 매개를 담아 '우주 풍경화'를 작업했다.

40년이 넘도록 화가는 다양한 양식을 통해 우주를 주제로 삼아 작업을 진행했다. 1969년 7월 처음으로 우주에서 본 지구를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본 작가는 그 후부터 숨겨

러 우주를 표현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우주의 풍경을 그린 선구자나 다름없다.

불교와 도교의 철학적 성찰에 조예가 깊은 그는 대형 캔버스에 광활한 우주를 그리고 그 우주 어디엔가 떠 있는 가상의 생명체를 그려 넣어 초자연과 일상의 소통을 추구한다.

작가는 사람들이 무(無)에서부터 왔고, 그들 스스로 이 행성에 '지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 말한다. 그는 형식이 있어서 굳이 추상성에 치우치지 않고 형상과 상징들을 섞어가며 자유로이 유희하듯 화면을 배치해 간다.

작가는 최근 1년 여 동안 인천 아트플랫폼의 입주 작가로 열정적인 작업을 계속 이어왔다. 이번 전시는 이전보다 더 경쾌하고 매력적인 작품으로 우주의 심연으로 상상의 여행을 떠나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한다. (02)734-0440-1

이은정 기자

###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또한 불자들에게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m(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문의 : 010-8442-4444(상담) / 010-3534-8366(농장)  
 묘목 재배 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부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 백초귀장술

### 조상을 제대로 뽐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귀신뽐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쓱쓱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④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⑤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베스트셀러 진입!

白超律曆學堂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임현주